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 혼선 계속

## 제주도, BD 5 사용으로 환경보호 강화 추진 ... 정유기업은 난색

제주도가 경유에 첨가하는 바이오디젤(BD) 비율을 5%(BD 5)까지로 늘려 청정도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유기업들에게 협의를 제안해 주목된다.

정유기업들은 7월부터 BD 납품기업을 선정하고 대두유나 폐식용유 가공원액인 BD를 경유에 섞은 BD 혼합 경유를 만들어 시판하고 있으나 혼합비율은 0.5%(BD 0.5)에 그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관련법에서 BD를 5% 이하로 섞는 경우만 시판토록 하면서 정유기업들의 품질 안정성 보장 요구 등을 받아들여 향후 2년간은 BD 혼합비율을 5% 이내에서 자율 조정토록 결정해 정유기업들은 BD 5가 아닌 BD 0.5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최근 SK,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도지사 명의의 공문에서 "제주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통한 청정환경을 위해 BD 혼합비율을 상향시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BD 5의 공급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정유기업들이 앞으로 BD 5 혼합이 가능한 지를 놓고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 관계자는 "모든 정유기업들이 BD 0.5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BD 5를 생산하려면 별도의 생산시설과 저장탱크 등을 마련해야 해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BD 혼합경유는 질소산화물을 오히려 종전의 순수경유보다 많이 배출하는 등 반드시 청정연료라고만 할 수 없고 연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08>